

한국의 도서관계를 이끄는 인물

김 용 성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이사장
kimys@krib.co.kr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유행가가 생각난다. 아직도 사서는 멀었고, 아직도 도서관계는 멀었다. 서두부터 푸념을 늘어놓는 사연은 이렇다.

『시사저널』은 지령 제1000호(2008.12.23) 기념 특별기획으로 “한국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300인”을 선정, 수록함으로써 화려하고 거창하게 연말을 장식하였다. 사실을 말한다면, 필자 역시 그 화려함과 거창함과 호기심에 이끌려 3천원을 지하철 가판대에 선뜻 지불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가 다룬 조사 대상 분야 30개를 확인한 결과, “개신교, 건축, 게임, 과학기술, 관광, 교육, 금융, 기업, 농업, 만화, 무용, 문학, 미술, 법조, 복지, 불교, 스포츠, 시민운동, 여성, 연극, 연예, 영화, 음악, 의료, 정치, 천주교, 출판, 패션, 환경, IT” 등이었다. 도서관은 찾을 수 없었고, 당연히 도서관계(학계를 포함하는 뜻임)의 인물은 이 기념호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잡지의 편집국장은 “1000호의 영광을 독자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사족이지만 이 기념호의 표지에 수

록된 많은 인물들의 사진을 아무리 훑어지게 들여다보아도 도서관계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었고, 전문가 1,500명이 선정했다는 표지기사 때문에 필자는 화가 나고 속이 탔다.

우리 도서관계는 한국의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물론 『시사저널』의 안목을 먼저 탓해야 하고, 시야를 넓힌다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탓할 일이다.

사서자격증을 받아 도서관 현장에서 일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학위를 받아 문헌정보학 교수로 있었던 필자는 우리 도서관계의 과제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첫째, 도서관계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복지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계는 대한민국 학술원의 정회원을 배출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계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도서관상(圖書館賞)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국도서관협회 회비의 납부를 권리와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및 한국문헌정보학회 등은 역동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항일시대, 8·15광복, 6·25동란, 4·19혁명, 군사정권을 거쳐 오늘의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우리 도서관계의 피나는 노력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는가. 같은 맥락으로 “2008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보노라면(『도서관문화』, 제50권 제1호, 2009. 1), 우리 도서관계의 노력은 빛을 발한다. 같은 호에 실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신년사 역시 좋은 글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음으로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도서관계의 지도적 인물들은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말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국의 도서관계를 이끄는 인물을 선정해 봄도 부질없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